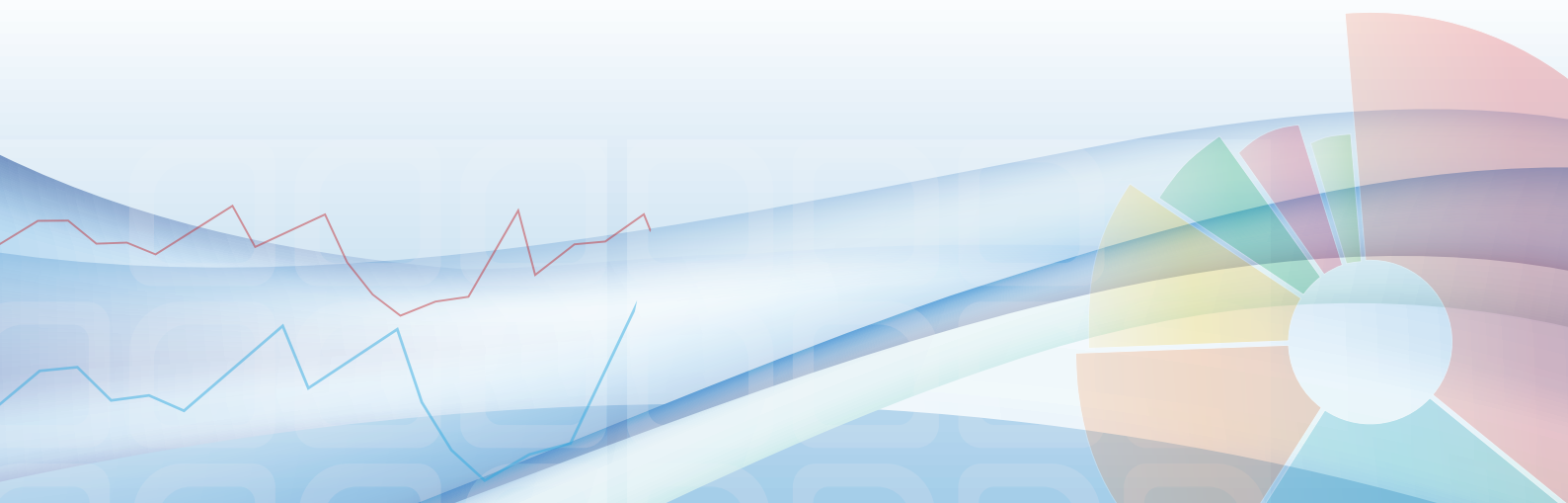


# 2012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이원자 편역

일본국제교류기금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일본연구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공동조사연구에 의한 것이며,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소장이 총괄하였습니다.

본 조사연구는 2005년 이후의 한국에서의 일본연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단, 분야에 따라 조사대상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연구조사는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진창수 엮음, 2007, 한울아카데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집필자 |

- **진창수** \_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소장, 책임연구자
- **이면우** \_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도형** \_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 **윤병남** \_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일본문화전공교수
- **최 관** \_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교수
- **최재철** \_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학부교수
- **이강민** \_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교수
- **한영혜** \_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 제7장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 강 민 (한양대학교)

### 1. 머리말

이 글은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세종연구소의 주관으로 실시된 2012년도 일본연구조사의 일환으로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준비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를 각각의 시기에 따라 구분해보면 국어학자나 언어학자에 의해 일본어 관련 연구논문이 발표되던 5-60년대, 한국일본학회와 일어일문학회가 설립되어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이 시작된 70년대, 전국의 각 대학에 일어일문학과가 본격적으로 설립됨에 따라 연구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연구 논문이 증가되어갔던 8-9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의 연구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일본 관련 학회가 전국 각지에 연이어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른 연구 논문의 양적 팽창은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2005년 이후에 전개된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조사의 대상을 2005년 이후로 설정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전반기(2000-2004)의 일본어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실시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sup>67)</sup> 따라서 이번 조사는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2000년대 후반기(2005-2011년)의 연구 동향을 2000년대 전반기의 동향과 상호비교적인 시점에서 기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논술의 순서 상 초창기의 일본어 연구에 대한 동향도 제시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일본어 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거시적인 시점에서 비교해보면서 최근의 미시적인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한국의 일본어 연구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하 먼저 초창기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본문에서는 2000년대 후반기(2005-2011년)에 파악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현황 및 분야 별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해나가기로 한다.

### 2. 초창기 일본어 연구의 개관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는 다른 외국어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방 후 국내에서는 일본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력

67) 2005년도에 실시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조사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2007. 한울아카데미) 참조

이 극도로 부족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사용을 강요 받기는 했으나 일본어 연구에 흥미를 느꼈던 한국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어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초창기(1945-1970년대)의 일본어 연구는 국어학자와 언어학자의 간헐적인 연구 논문에 의해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초창기의 연구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서 우리는 1988년에 간행된 『日本學報』 제20집을 주목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는 한국일본학회 창립 15주년의 기획 테마로서 국내의 일본어 연구 동향을 특집<sup>68)</sup>으로서 게재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해방 후로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日本學報』 제20집의 기획 테마는 국내의 일본어 연구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서는 한국 최초로 시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당시의 각 대학에서 발간된 논문집, 국어학과 언어학 관련 학술지를 총괄하여 면밀하게 조사·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창기 일본어 연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획 테마인 연구 동향의 부록으로 첨부된 297편의 「일어학 관련 논문목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연구 실태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표 VII-1〉 1945-1987 논문 게재 현황

| 연도    | 논문 수 | 연도    | 논문 수   |
|-------|------|-------|--------|
| 1955년 | 1    | 1977년 | 7(1)   |
| 1957년 | 1    | 1978년 | 6      |
| 1962년 | 1    | 1979년 | 11(2)  |
| 1965년 | 1    | 1980년 | 10(2)  |
| 1966년 | 1    | 1981년 | 14(3)  |
| 1969년 | 1    | 1982년 | 22(6)  |
| 1970년 | 1    | 1983년 | 24(2)  |
| 1973년 | 4(1) | 1984년 | 52(17) |
| 1974년 | 3(1) | 1985년 | 45(13) |
| 1975년 | 7(1) | 1986년 | 51(19) |
| 1976년 | 3(1) | 1987년 | 31(19) |

\* ( )는 일본 관련 전문학술지의 게재 논문 수

위의 표에 보이는 연도 별 논문 수는 해당 연도의 대학논총 및 각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합계로서 해방 후로부터 1980년대의 연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73년부터 보이는 괄호 안의 수치는 그 중 일본 관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로, 구체적으로는 1973년에 창간된 『日本學報』와 1979년에 창간된 『日語日文學研究』에 게재된 논문을 말한다.

위의 표에서 볼 때, 한국의 일본어 관련 연구 논문은 1955년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이 후 1970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극소수의 논문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논문이 복수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학회가 등장한 1973년 이후이며 그 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984년에 이르러 논문의 수가 한 단계

68) 『日本學報』(제20집, 1988.5)의 특집은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회고와 전망-」으로 기획되었으며 일본어학(이봉희), 일본문학(황석승), 일본민속(최길성), 일본교육(김용숙)으로 분류되는 4개 분야의 연구 동향을 게재하고 있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1950년대에 최초로 등장한 일본어 관련 논문과 『日本學報』 및 『日語日文學研究』가 창간된 시기에 게재된 논문을 각각 아래에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李崇寧 「韓日兩國의 語彙 比較 試考 -糞尿語를 중심으로 하여-」 『학술원회보』, 1955

金完鎭 「捷解新語에서의 日本語 轉寫에 대하여」 『서울대 문리대학보』 5-2, 1957

宋敏 「古代日本語에 미친 韓語의 影響」 『日本學報』 제1집, 1973

宋敏 「最近의 日本語 系統論에 대하여」 『日本學報』 제2집, 1974

高昶植 「韓·日 漢字語의 音韻比較 -朝鮮(中古)漢字音을 中心으로-」 『日本學報』 제5집, 1977

金公七 「Ainu어 명사의 형태에 대하여 -한일어와의 비교연구에 관련하여-」 『日語日文學研究』 제1집, 1979

李昌雨 「韓日 양국어의 닿소리 체계의 차이점과 음성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日語日文學研究』 제1집, 1979

辛容泰 「한국어 일본어의 공통조어연구-Swadesh 기초어휘에 의해서-」 『日語日文學研究』 제3집, 1982

위에 제시한 논문들의 저자의 소속을 열거해보면 이승녕(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완진(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송민(국민대 국어국문학과), 고창식(서울대 국어교육과), 김공철(제주대 일어일문학과), 이창우(인천대 일어일문학과), 신용태(동국대 일어일문학과)와 같이 확인된다. 즉 위와 같은 사실에서 초창기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국어학 연구자에 의해 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계통론적인 관련성을 추구하는 통시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왔으며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창기 일본어 연구자 역시 이와 같은 조류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교육적인 측면에서 현대일본어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는 것은 학회가 설립된 70년대 이후의 일로 파악되고 있으며, 『日語日文學研究』의 경우, 초기 단계에 이미 일본어로 기술된 논문이 게재되고 있음도 언급해줄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초창기 일본어 연구의 모습은 최근의 변화된 연구 동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2000년 이후의 현황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초창기 일본어 연구 동향을 되짚어보면서 2000년 이후 최근 10년 사이에 전개된 일본어 연구의 주된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sup>69)</sup>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국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을 살펴본 후, 논문 게재 현황과 주제 별 연구 내용을 2000년대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상호 비교적인 시점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69) 국내의 일본어 연구는 1994년에 이르러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에 대학의 연구 환경이 업적 평가 위주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일본 관련 학회가 다수 출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구 논문 수도 8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되나 이에 대해서는 이강민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語 研究(1994-1996)」 (『漢陽日本學』 제8집, 2000.2) 참조.

### 3.1.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

국내 대학에서 일본 관련 학과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에 한국외국어대학에 일본어과가 개설되면서부터이다. 이어서 1962년에는 국제대학(지금의 서경대학교)의 일어일문학과, 1973년에는 당시 상명여자사범대학(지금의 상명대학교) 외국어교육과에 일어교육전공이 개설되었는데 초창기의 일본 관련 학과가 공통적으로 ‘일본어’를 표방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이후 80년대에는 전국 각 대학에 일어일문학과가 개설되어 비약적인 양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90년대에 접어들면 일본학과의 명칭으로 학과 개설을 시도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게 된다. 현재 국내의 대학에 개설된 일본 관련 학과의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2〉 일본 관련 학과 개설 대학 수

|         | 서울·京畿 | 江原 | 忠淸  | 嶺南  | 湖南  | 濟州 | 계    |
|---------|-------|----|-----|-----|-----|----|------|
| 4年制     | 39校   | 4校 | 19校 | 25校 | 11校 | 1校 | 99校  |
| 2·3年制   | 11校   | 1校 | 2校  | 10校 | 2校  | 3校 | 29校  |
| 通翻譯 大學院 | 3校    |    | 1校  | 1校  |     | 1校 | 6校   |
| 계       | 53校   | 5校 | 22校 | 36校 | 13校 | 5校 | 134校 |

국내 대학에 개설된 일본 관련 학과는 4년제의 경우 99개교, 2·3년제의 경우 29개에 이르며 여기에 6개의 통번역대학원에서 일본어통역과를 개설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학과명으로서 크게 보아 ‘일본어과’→‘일어일문학과’→‘일본학과’와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개설된 학과명을 살펴보면 일어일문학과, 일본어과, 일본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또는 전공), 일어교육과, 일어일본학과, 일본어문학과 등의 명칭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2·3년제의 경우에는 관광일어과, 일본어과, 관광통역과, 일본어통번역과, 호텔관광과, 산업일본어과, 국제통상일어과 등과 같이 일본어와 관광 및 통역을 연계시킨 학과명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의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이 전체 개설 대학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아울러 제주의 경우, 모든 대학에 일본 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일본어 연구자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본어 연구자의 현황을 아래에 표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표 VII-3〉 일본어 연구자(전임교원)의 수 ( )는 일본인 교수 수

|         | 서울·京畿    | 江原    | 忠淸      | 嶺南      | 湖南      | 濟州    | 계         |
|---------|----------|-------|---------|---------|---------|-------|-----------|
| 4年制     | 88(64)명  | 3(5)명 | 28(40)명 | 60(49)명 | 25(17)명 | 2(1)명 | 206(176)명 |
| 2·3年制   | 19(12)명  | 3명    | 3(4)명   | 10(6)명  | 2명      | 3(2)명 | 40(24)명   |
| 通翻譯 大學院 | 7명       |       | 4(1)명   | 1(1)명   |         | 1(1)명 | 13(3)명    |
| 계       | 114(76)명 | 6(5)명 | 35(45)명 | 71(56)명 | 27(17)명 | 6(4)명 | 259(203)명 |

<표 VII-3>은 국내 일본어 연구자(전임교수)의 지역별 분포도이다.<sup>70)</sup> 이 표에 의하면 국내에서 대학 전임으로 활동 중인 한국인 일본어 연구자는 도합 259명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시간강사의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의 존재를 생각하면 실제 활동 중인 일본어 연구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표3의 대학전임 수와 표2의 학과 개설 대학 수를 연계시킨다면 현재 한국의 4년제 대학에서는 학과 당 일본어학(일본어교육 포함) 전공 전임교수를 평균 2명 정도, 2·3년제에서는 평균 1.4명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또한 지역별 분포도에서는 4년제의 경우 개설 대학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원도의 연구자가 적으며, 2·3년제에서는 역시 개설 대학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남권의 연구자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전임교수의 비율에서는 서울·경기의 수도권과 영남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1%에 이르고 있어 학과 개설 비율(6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임교수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학의 일본인 교수 또한 전체적으로 2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4년제 대학에서는 학과 당 평균 1.8명 정도, 2·3년제에서는 평균 0.8명 정도의 일본인 교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만 국내 대학의 일본인 교수의 경우, 그 자격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어 실제 일본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기초일본어나 교양일본어 과정을 담당하는 일본인 교수의 경우 연구 업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내에서 연구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인 교원의 수는 전체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40명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sup>71)</sup>

이와 같이 볼 때, 현재 국내에서는 전국에 분포하는 134개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최소한 300여명의 전임교수(한국인 260, 일본인 40)에 더하여 시간강사 및 대학원생(박사과정) 등이 일본어 연구자로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3.2. 연도 별 논문 게재 현황

국내 일본어 연구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5·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연도 별 논문 게재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여기에서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12년간에 걸쳐 7개 학술지<sup>72)</sup>에 게재된 연도 별 게재 논문 수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70) 표3의 서울·경기 지역은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자 1명이 포함된 수치이며, 일본인 교원의 경우에는 홍익대 34명(서울21, 조치원13)을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이다.

71) 이와 같은 추정은 후술할 표5에 보이는 일본인 게재 논문 수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2) 조사 대상의 7개 학술지(창립연도 순)는 다음과 같다. 『日本學報』(한국일본학회), 『日語日文學研究』(한국일어일문학회), 『日語日文學』(대한일어일문학회), 『日本語文學(1)』(일본어문학회), 『日本語文學(2)』(한국일본어문학회), 『日本文化學報』(한국일본문화학회), 『日本語學研究』(한국일본어학회).

〈표 VII-4〉 2000년 이후 일본어 관련 7개 학술지의 논문 게재 현황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140편  | 162편  | 188편  | 223편  | 277편  | 290편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264편  | 297편  | 288편  | 291편  | 285편  | 294편  |

표4는 최근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본어 연구의 양적 증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12년간의 연평균 게재 논문 수는 250편에 이르는데 이것은 대략 30편 정도의 연평균 논문 수를 기록했던 80년대에 비하면 최소한 8배 이상 증가된 논문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2004년 이후에는 양적인 증가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신설된 일본 관련 학과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새로운 신진 연구자의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기존 연구자들의 중심 연령이 40대에서 50대로 이행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의 움직임을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연도 별 게재 논문 수를 바탕으로 2005년 이후에 전개된 논문 게재 내역을 각 학술지 별로 다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다.

〈표 VII-5〉 일본어 관련 7개 학술지 연도별 논문 게재 수 ( )는 일본인 논문 수

| 학술지명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합계             |
|-------------|---------------|-------------|---------------|---------------|---------------|---------------|---------------|----------------|
| 日本學報        | 51(5)         | 34(6.5)     | 44(8.5)       | 43(9.5)       | 36(1.5)       | 39(4)         | 28(3)         | 275<br>(38)    |
| 日語日文學<br>研究 | 72(7)         | 69(4)       | 75(11)        | 69(14.5)      | 74(23)        | 73(16)        | 76(25)        | 508<br>(100.5) |
| 日語日文學       | 36(1)         | 36(3)       | 40(1.5)       | 36(3.5)       | 44(6.5)       | 46(9.5)       | 37(8)         | 275<br>(33)    |
| 日本語文學(1)    | 37(1.5)       | 27(1)       | 33(0)         | 37(2.5)       | 41(2)         | 36(2)         | 32(4)         | 243<br>(13)    |
| 日本語文學(2)    | 38(1.5)       | 43(0.5)     | 36(3)         | 33(3)         | 27(3.5)       | 23(0)         | 30(6)         | 230<br>(17.5)  |
| 日本文化學報      | 24(0)         | 27(2)       | 32(7)         | 22(2)         | 20(1)         | 23(1)         | 29(7.5)       | 177<br>(20.5)  |
| 日本語學研究      | 32(4.5)       | 28(5)       | 37(8.5)       | 48(10)        | 49(8)         | 45(5)         | 62(16)        | 301<br>(57)    |
| 합계          | 290<br>(20.5) | 264<br>(22) | 297<br>(39.5) | 288<br>(39.5) | 291<br>(45.5) | 285<br>(37.5) | 294<br>(69.5) |                |

위의 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日本學報』에서는 일본어 관련 논문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日語日文學研究』와 『日本語學研究』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 논문 수<sup>73)</sup>의 증가 추세이다. 즉 2005년 이후 일본인 논문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1년도의 논문 수는 2005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일본인 논문은 상대적으로 『日語日文學研究』와 『日本語學研究』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011년도의 경우, 『日語日文學研究』와 『日本語學研究』에서 일본인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와 26%에 이르고 있어 국내 일본인의 연구 활동이 집단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국내의 학술지에 보이는 일본인 연구 논문 수의 증가 추세는 후술할 연구 주제의 분포 경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 3.3 연구 주제 및 연구 내용

여기에서는 먼저 표4에 근거한 2000년 이후 12년간의 게재 논문을 주제 별로 재분류하여 그 분포도를 2000년대 전반기(2000-2004)와 후반기(2005-2011)로 나누어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sup>74)</sup>. 특히 2000년대 전반기의 분포도는 2005년에 실시된 첫 번째 일본연구조사에서 조사되었던 것으로 이것을 다시 이번 조사된 후반기와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함에 두 표를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표 VII-6〉 연구 논문(2000-2004)의 주제 별 분포

| 總論   | 文字・表記 | 音聲・音韻 | 文法   | 語彙  | 日本語史 | 日本語教育 | 社會言語學 | 其他  | 계    |
|------|-------|-------|------|-----|------|-------|-------|-----|------|
| 4편   | 9편    | 34편   | 369편 | 88편 | 229편 | 167편  | 79편   | 11편 | 990편 |
| 0.5% | 1%    | 3.5%  | 37%  | 9%  | 23%  | 17%   | 8%    | 1%  | 100% |

〈표 VII-7〉 연구 논문(2005-2011)의 주제 별 분포

| 總論   | 文字・表記 | 音聲・音韻 | 文法    | 語彙    | 日本語史  | 日本語教育 | 社會言語學 | 其他   | 계      |
|------|-------|-------|-------|-------|-------|-------|-------|------|--------|
| 11편  | 34편   | 65편   | 614편  | 248편  | 315편  | 467편  | 165편  | 90편  | 2,009편 |
| 0.5% | 1.7%  | 3.2%  | 30.6% | 12.3% | 15.7% | 23.3% | 8.2%  | 4.5% | 100%   |

먼저 위의 두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내의 일본어 연구에서는 문법 연구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약간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국내의 일본어 연구자 가운데 1/3 이상은 문법 연구를 지향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어사와 일본어교육 분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세 분야가 전체의 70%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

73) 여기에서의 논문 수는 일본인 단독 저술을 1로 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동 저술을 0.5로 계산한 결과이다.

74) 개별 논문의 주제 별 분류에는 분류자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일본어 논문의 경우, 일본어교육과 사회언어학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2005년의 일본연구조사에서 분류한 방법에 근거하여 2000년대 후반부의 논문의 주제 별 분포도를 작성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면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는 문법, 일본어사, 일본어교육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휘와 사회언어학 분야도 꾸준히 일정 부분의 연구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의 두 표 사이에 보이는 흐름을 비교할 때 주목되는 것은 2000년대 후반기에서 일본어사와 일본어교육의 비중이 역전되었다는 점과 기타 분야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어 일본어교육 분야가 일본어사 분야를 크게 추월하여 현저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일본인 논문 수의 증가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일본어사 분야의 논문이 감소한 것은 연구 분야의 성격 상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소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과 신진 연구자의 유입이 감소한 점에서 그 원인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기타 분야의 증가 추세는 연구 테마가 다변화되어 가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음과 같은 통번역 관련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능주의 관점에서 본 펄벅 <대지> 번역」
- 「일본어 발화의 애매성이 통역결과물에 미치는 영향: 일한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 「한국어 추량계 부사의 일본어 번역례 연구」
- 「학습자의 니즈 중심의 통역교육: 대학의 통역교육 현황 분석을 토대로」
- 「日韓映像翻訳の字幕についての一考察-映画とテレビニュースを中心に」

아울러 다음과 같은 논문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일본어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논문 테마로 일정 부분 일본어교육 분야의 증가와 연구 테마의 다변화 현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 「韓国における日本語ネイティブ教師の韓国と韓国人に対する意識に関する調査」
- 「JFL環境における韓国人学習者の日本語教師イメージ:比喩生成課題による調査」
- 「継承語教育における父親の役割-韓国における大学日本語教員を対象に-」
- 「일본문화 태도교육의 이론과 실제」
- 「얼굴 인식 기반 일본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이와 같이 볼 때, 최근에 보이는 연구 테마의 다변화는 기존의 연구방법론이나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논문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내용의 질적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이후에 발간된 일본어 관련 연구서(일본어교재 제외)의 주제 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표 VII-8〉 연구 저서(2005-2011)의 주제 별 분포

|       | 音聲・音韻       | 文法          | 語彙            | 日本語史        | 日本語教育         | 社會言語學       | 其他          | 계            |
|-------|-------------|-------------|---------------|-------------|---------------|-------------|-------------|--------------|
| 2005년 | 1           | 9           | 1             |             | 2             |             | 1           | 14           |
| 2006년 |             | 7           |               | 3           | 4             |             |             | 14           |
| 2007년 | 1           | 2           | 4             | 1           | 2             | 1           | 1           | 12           |
| 2008년 | 1           | 4           |               | 3           | 6             | 1           | 1           | 16           |
| 2009년 |             | 5           | 2             |             | 3             | 1           |             | 11           |
| 2010년 |             | 2           |               |             | 4             | 1           |             | 7            |
| 2011년 |             | 2           | 3             | 1           | 6             |             |             | 12           |
| 계     | 3<br>(3.5%) | 31<br>(36%) | 10<br>(11.6%) | 8<br>(9.3%) | 27<br>(31.4%) | 4<br>(4.7%) | 3<br>(3.5%) | 86<br>(100%) |

위의 표는 장원재 『현대한일어휘와 그 형성에 관한 대조연구』(2009, 태학사)를 비롯하여 해당 기간에 간행된 86권의 저서를 연구 주제 별로 분류한 것인데 문법과 일본어교육 분야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같은 기간의 연구 논문의 주제 별 분포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서 쪽에서는 연구 논문에 비해 어휘 분야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음은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국내의 일본어 관련 연구서의 출판사로서 J&C, 한국문화사, 한국학술정보, 어문학사, 보고서, 역락, 대학서림, 박문사 등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은 기록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연구 동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연구 비중이 높은 분야의 연구 내용을 요약해 두고자 한다.

먼저 연구 비중이 가장 높은 문법 분야에서는 전 시기(2000-2004)에 이어서 보이스(voice)와 모달리티(modality), 텐스(tense)·어스펙트(aspect)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구문론(통사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연구 테마로 특히 보이스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어의 한어동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논의를 모색해나가고 있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또한 문법 연구의 키워드로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작성동사(作成動詞), 탈착동사(脫着動詞) 등의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이들은 중간구문에 대한 인지언어학적인 접근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국내의 문법 연구도 일본 내의 연구 동향과 보조를 같이하여 인지언어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교육 분야에서는 전 시기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연구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업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나 오용분석과 담화분석 등은 꾸준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JSL/JFL<sup>75)</sup>의 차이점과 이에 따른 일본어교육에의 응용, 여기에 계승어교육<sup>76)</sup>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국내의 일본어교육 분야에서도 일본의 연구 동향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75) JSL(Japanese as Second Language,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 JFL(Japanese as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일본어).

76) Heritage Language의 번역어, Community Language의 번역어로서도 사용됨.

일본어사의 경우는 조선자료(朝鮮資料)로 통칭되는 한국 측 일본어자료와 일본 측 한국어자료로서의 『交隣須知』, 그리고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2000-2004년에 이어서 한국의 석독구결(釋讀口訣)과 일본의 훈점자료(訓点資料)의 대조연구, 여기에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등장하는 한국계 고유명사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이 시기의 일본어사 연구의 특징으로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이 한국어나 한국 측 자료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염두에 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일본어사 분야는 일본어연구가 가지는 한국적인 특징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된다.

어휘 분야에서는 유의어(類義語)와 코퍼스(corpus) 연구가 연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어휘 연구는 IT기술의 진전과 함께 코퍼스 연구에 치중되고 있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의 코퍼스 연구는 단순한 용례 검색을 넘어서는 연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방향 전환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울러 한국어에 유입된 일본한자어의 도입 과정이나 전문용어의 어휘적 특성과 체계화에 관련된 논의도 이 시기에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지적해두고 싶다.

사회언어학 분야에서는 언어행동과 비언어행동, 신조어와 유행어, 직장 내의 호칭 등에 관련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의 키워드로서 커뮤니케이션 전략(communication strategy)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언어경관(言語景觀)<sup>77)</sup>과 같은 키워드는 국내의 사회언어학 연구가 일본의 연구 동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로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5-60년대의 초창기, 80년대의 성장기, 그리고 90년대의 비약적인 팽창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30편에 불과했던 연구 논문 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평균 300편 이상의 양적 팽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팽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00년 이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안정된 정체기’에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4개 학과(2·3년제 대학과 통역대학원 포함)에서 259명의 전임교원(한국인)이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에 신설된 학과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신진 연구자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2005년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연구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일본어교육 분야에서 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이 연구 내용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내 일본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

77) 다문화사회에 기반을 둔 문화지리적인 용어. 주로 시각적인 표시에 의해 명시된 언어경관을 의미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청각적인 요소를 가미한 음성경관을 포함한다.

이다.

분야 별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문법, 일본어교육,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비교적 일본 국내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나 한국 측 자료와 밀접히 연계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어사 분야의 경우, 일본어 연구의 한국적인 특징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일본어의 위치는 90년대를 기점으로 ‘실용어’에서 ‘문화어’로 이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어로서의 일본어는 일정 부분 직접적으로 취업에 연계된 실용어의 위치에 있었으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세계화의 여파와 함께 그 실용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갔다. 그 대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일본대중문화의 유행과 함께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일본어 학습은 증가되어 갔으며 청소년기에 일본어를 접한 세대가 성장하여 일본이나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교양으로서의 일본어 학습은 확대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의 일본어의 위치는 ‘실용어’에서 ‘문화어’로 이행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인에게는 배우기 쉬운 일본어의 구조적인 유사성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작년의 3.11 대지진과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는 한국의 일본어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듯하다. 특히 일반 사회의 일본어 학습자는 작년의 대지진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며 아직도 원상 복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문화어적인 일본어의 위상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은 과거 독일어나 프랑스어에서 일본어로 바뀌어가는 흐름이 있었으나 이것이 다시 일본어에서 중국어로의 선택을 촉진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일본어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일본어 연구는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완만한 하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본어 연구는 연구의 양적인 면보다는 내용면에 있어서 어떻게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돌아보면 과거 한국의 일본어 연구에서는 몇몇 연구 어젠다가 설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60년대의 계통론적인 연구나 80년대의 일본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연구, 90년대의 조선자료(朝鮮資料)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은 하나의 한국적인 연구 어젠다로 형성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국내 일본어 연구의 의미 있는 어젠다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연구 동력을 서서히 상실해간 경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냉정히 되돌아보면서 향후의 연구 어젠다를 발굴해나가는 데 연구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향후 한국에서의 일본어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에서 접근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먼저 첫째로 언어학적 연구로서의 일본어 연구의 심화이다. 이것은 일본어 과학으로서의 일본어 연구의 체계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어 자체의 분석능력을 향상시켜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본어 연구와 한국어 연구를 연계시켜 나가는 방향이다. 종래의 표면적인 대조연구가

아니라 언어의 심층구조의 이해에 기반을 둔 대조연구를 다방면에 걸쳐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의 축적은 향후 범위를 확대한 언어유형론적인 대조연구를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는 일본어 연구와 일본어교육의 연계이다. 이것은 2009년도 세계일본어교육대회에서 채택된 심포지엄의 어젠다이기도 하다. 일본어학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일본어교육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양 분야 공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일본어교육의 상승세는 이와 같은 연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에 증가하고 있는 일본어 전공의 중국인 유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도 국내의 일본어 학계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일본어 연구와 일본문화를 연계시켜 나가는 방향이다. 근대 이후의 언어 연구가 언어는 문화의 독립변수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일본문화의 근원은 일본어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국내의 일본어 연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연구 주제의 다변화 현상에는 일본어 연구에 문화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4가지 방향은 개별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그 중요도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일본어 연구는 이 4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이 같은 틀 속에서 새로운 연구 어젠다를 모색해보는 것은 현 시점의 연구자들에게 부여된 당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이강민(2002)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연구(1999-2000)」 『日本學報』 제52집  
 이강민(200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연구(2001-2002)」 『日本學報』 제55집  
 이강민(2005)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연구(2003-2004)」 『日本學報』 제64집  
 이강민(2008)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 연구(2005-2006)」 『日本學報』 제74집  
 이봉희(1988)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일본어학) -회고와 전망」 『日本學報』 제20집  
 진창수 외(2007)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2007.6, 한울아카데미)

##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우)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8-1 버티고빌딩 2~3층

사무실 : TEL 02-397-2820 | FAX : 02-397-2830

문화정보실 : TEL 02-397-2860 | FAX : 02-397-2870

URL : [www.jpfr.or.kr](http://www.jpfr.or.kr)

##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우)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TEL : 031-750-7500 | FAX : 031-754-0100

URL : <http://www.sejong.org/index.php>